“소상공인 살리자” 광주시, 골목경제상황실 가동

골목상권 주변 도로 야간주차 허용

공공기관-전통시장 1대1 매칭 지원

市 산하 전담조직 신설도 검토키로

광주시가 골목상권 주변 도로의 야간주차를 허용하고 공공기관-전통시장·골목상점가 1대1 매칭 지원 등을 통해 골목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광주시는 18일 기획조정실에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현장밀착형 정책 추진의 구심점인 ‘골목경제 상황실’을 설치하고 첫 회의 개최와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강기정 시장이 주재한 이날 첫 회의에는 광주시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공공기관은 ‘골목경제 상황실’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 공공기관에서는 장보기, 점심식사 골목식당 가기, 전통시장 이용 확대, 소상공인 홍보광고 제작 등 기관별 소비 촉진 및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다.

이들은 또 ▲골목상권 주변도로 야간주차 허용 ▲시·공공기관과 전통시장·골목 상점가 간 1대1 매칭 지원 ▲광주공공배달앱 활성화 ▲골목상권 전담조직 신설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치고 광산구 금호타이어 인근 골목상권 내 식당으로 이동해 오찬을 하는 등 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했다.

광주시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골목경제 상황회의’를 본격 운영하고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밀착형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8일 오전 시청 기획조정실장실 앞에서 골목경제 상황실 현판 제막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또한 골목경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 산하에 골목상권 전담조직 신설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20일 공공배달앱 활성화 간담회를 열어 배달 수수료 절감 및 공정한 판로 확보 등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강기정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며 “우리는 온 힘을 다해 골목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 광주시민들이 전국 투표율 1위로 새 정부에 걸고 있는 기대를 보여준 만큼 광주시와 공공기관에서는 시민들의 심장이 새로운 희망으로 두근거릴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선공약의 국정과제화를 위해 일명 ‘양 날개 상황실’인 ‘골목경제 상황실’과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지역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골목경제 등 민생 살리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변은진 기자

李대통령, 9개국과 외교 데뷔전 마무리

“정상외교 복원·실용외교 첫걸음” 자평

기대했던 트럼프와 만남 무산 아쉬움

이시바 총리 회담 통해 협력 강화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무대에서 이틀간 펼친 정상외교 데뷔전을 마무리했다.

취임한 지 12일 만에 이뤄진 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으로 이 대통령이 천명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오른 자리였다.

G7 회의 참석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페이스북에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며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의 양자 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래를 주도할 핵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무력 충돌 사안에 따라 G7 참석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한 데 따라 무산됐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 성과로 가장 먼저 국제 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 및 정상외교가 복원됐음을 알린 점을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시간) 51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캐나다 캘거리 국제공항에서 귀국하며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기치로 들고 나선 이 대통령의 첫 정상 외교전은 분주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현지에서 보낸 단 이틀 동안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모두 9개국 정상을 만나 경제 등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유엔 수장과도 회동했다.

도착 첫날엔 캘거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호주 정상과 잇따라 회담했다.

둘째 날은 G7 회의장이 있는 캐내내스키스에서 ▲브라질 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 ▲유럽연합(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번 일정 가운데서 하이라이트로 꼽히는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이시바 총리와 한일 협력 심화 및 셔틀 외교 복원, 한미일 공조의 지속적 유지·발전에 뜻을 모았다.

한편,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이번 일정에 동행, 초청국 환영 리셉션, 캘거리 한인회관·캐나다 국립장애인예술센터 방문 등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김진수 기자

전남도, 건설현장 안전·품질 높인다

견실시공 교육…현장 맞춤형 진행

전남도는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18일 완도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건설업무 담당 공무원과 시공사, 감리단, 안전·품질관리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건설안전 및 견실시공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청렴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청렴교육을 시작으로 건설현장 법적 의무사항 안내, 건설사고 사례 분석 등 프로그램을 구성해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 역량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건설현장 안전의식 부재 극복과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를 주제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 ▲건설공사 품질관리 ▲장마철 주요 점검사항 등을 교육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교량 붕괴, 타워크레인 전도, 작업자 추락사고 등 실제 건설사고 사례를 토대로 가설 구조물 점검 체계, 가시설 보강 방안 및 장마철 대비 배수관리 등 안전조치 사항을 제시했다.

단순한 매뉴얼 숙지가 아닌, ‘생각하고 행동하는 안전관리’를 위해 실천적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교육으로 이뤄졌다.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건설 현장은 안전이 생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특히 소규모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여름철 폭염·집중호우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1면 ‘복합쇼핑몰 건립’서 계속

이어 문 구청장은 “교통 문제는 이 사업을 둘러싼 가장 큰 고민이었다”며 “광주시가 대안으로 추진 중인 도시철도 광천상무선이 정상 추진돼도 2032년 준공 예정인 만큼 복합쇼핑몰 개점 시기인 2027년까지 최소 5년 이상의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기간 급증할 교통 수요를 현재 인프라 만으로 감당하기엔 분명 한계가 있다”며 “광주시에서 북구가 건의한 교통 개선 대책과 ‘대자보 정책’을 병행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북구가 제안한 22건의 교통 개선 대책 중 12건 반영, 8건 미반영 처리했으며 2건은 장기 과제로 남겨 뒀다. 장기 과제 2건은 운암동 사거리 구간을 지하화하는 문제인데 사실상 협의가 종료된 건”이라며 “지하철 개통 전까지 교통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는 자전거 도로, 보행로를 줄이고 도로를 확장한다고 될 게 아니라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더현대 광주’와 관련, 강 시장은 “광주시와 현대백화점은 7월 초 ‘착공 로드맵 보고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보고회에는 착공·준공·운영까지의 상세한 계획과 ‘더현대 광주’의 내·외부 시설 계획을 비롯한 콘텐츠 운영 계획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

광주역앞 중흥6거리코너(중흥동712-14외2)
대형빌딩 상업지628평 지하4층지상10층
건평344평 연건평3,778평 승강기3대 주차150대
급매220억(조정가능)
공공기관,의료시설,쇼핑쎈타등
무슨 업종이던 좋은 위치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